

# 바 레 인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2.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2

## I. 일반개황

면적	760km <sup>2</sup>	GDP	339억 달러 (2016년)
인구	1.35백만 명 (2017년)	1인당 GDP	25,170달러 (2017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Bahraini Dinar (BD)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0.38 (달러 페그제)

□ 바레인은 36개 도서로 구성된, 한반도 면적의 0.3%에 불과한 760km<sup>2</sup>의 영토(강화도의 2배)를 지닌 걸프 지역의 소국(小國)임. 걸프협력위원회(GCC)\* 회원국들 중 원유 생산량이 가장 적어 원유를 인근 국가로부터 수입 후 이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음.

\* 걸프협력위원회(GCC) : 1981년 역내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 협력기구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으로 구성됨.

□ 1960년대부터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석유화학 외에 금융업, 관광업, 제조업 등도 핵심 산업으로 발전하였음.

□ 중동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로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미국은 바레인에 5개의 해군기지를 두고 있으며, 영국도 걸프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 해군기지를 건설하였음.

□ 법률상으로는 입헌군주국이나, 왕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음. 수니파인 al-Khalifa 가문이 200년 이상 통치해 오고 있으며, Hamad 現국왕이 1999년 즉위 후 현재까지 통치하고 있음.

□ 전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시아파에 대한 차별, 불평등 등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반정부 움직임으로 상황이 악화될 시 시위(테러) 진압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 주요국들의 전폭적 군사·경찰 지원이 예상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sup>e</sup>	2018 <sup>f</sup>
경제성장률	4.4	2.9	3.0	2.5	1.7
소비자물가상승률	2.7	1.8	2.8	0.9	3.5
재정수지 / GDP	-3.5	-18.4	-17.8	-13.2	-11.9

자료: IMF WEO

#### □ 저유가 추세에 따른 저성장 지속, 비석유 부문이 경제성장 견인

- 바레인은 2011년 반정부 시위 진압\* 이후 유가 상승, 금융 산업 성장에 힘입어 2012~14년 평균 4.5%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저유가 추세 및 종파 간 갈등에 따른 관광 수입 축소 등에 따라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튀니지,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 성공의 영향을 받아 2011년 2월 왕실(수니파)의 권력독점 구도 혁파와 시아파에 대한 각종 차별 철폐를 요구

- 2017년 경제성장률은 유가하락 추세 반전을 위한 산유국들의 원유생산량 감축 합의(16.12월)에 따른 원유생산 감소, 재정적자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 및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2.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저유가 지속으로 비석유 부문의 대형 프로젝트 및 사회 인프라 확충공사(주택, 상하수도, 교통, 전력 등)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알루미늄·정유 프로젝트 완공에 따른 생산능력 증대와 GCC 펀드\*\* 및 민간 부문 투자에 따른 인프라 프로젝트에 진행에 따라 향후 경제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국영 알루미늄 기업 Alba의 생산능력이 공장 증설로 2019년 이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트라 정유 고도화 프로젝트(생산능력 10만 bpd) 건설이 2022년 완공될 예정임.

\*\* 걸프협력위원회(GCC)는 2011년 반정부 시위 이후 경제회복 및 사회안정을 돕기 위해 GCC 개발기금을 창설, 오만과 바레인에 2021년까지 10년 간 각각 U\$100억 지원을 합의

□ 내수경기 침체 및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 하락

- 2017년에는 내수경기 침체 및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9%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연말 부가가치세(VAT)\*\* 도입의 영향으로 3.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바레인디나르(BD)는 1981년 이후 미 달러화에 peg(고정 환율제)되어, 미 달러화 강세는 수입물가 하락 요인 중 하나임.

\*\* 걸프협력위원회(GCC) 회원국들은 저유가 지속에 따른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VAT)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바레인의 경우 2018년 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 저유가로 인한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지속

- 바레인의 경우 원유·가스(hydrocarbon) 부문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이며,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원유가격이 배럴당 95달러 수준에 이르는 등 원유 의존도 및 민감도가 높음.
- 유가하락에 따라 2015년 및 2016년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8.4% 및 -17.8%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7년에는 유가 일부 상승 및 보조금 축소, 가스·전기·수도요금 인상 등에 따라 동 비중이 -13.2%로 전년대비 다소 축소되었음.
- 2018년에는 유가 일부 회복, 부가가치세(VAT) 도입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11.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국가경제가 여타 GCC 회원국들의 원유생산량과 국제경기 변동에 민감

- GCC 회원국들 중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이 가장 빈약함에 따라 여타 GCC 회원국들로부터 원유를 수입, 정제하여 수출하며, 또한 알루미늄 원광을 수입, 제련하여 수출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경제 전반이 주변국들의 원유생산량 및 국제경기 변동(석유 제품 및 알루미늄 제품의 수요 증감)에 크게 좌우되며, 주변국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 자국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크게 변동함.

### 나. 성장 잠재력

#### □ 협소한 국토와 적은 인구가 성장에 한계로 작용

- 바레인 영토의 면적은 760km<sup>2</sup>(한반도 면적의 0.3%)로 매우 협소하며, 인구도 130만 명에 불과하여 성장에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함.

#### □ 금융, 교통, 관광 산업 육성 등 다각화된 산업 발달

- 바레인은 GCC 회원국들 중 최소국(最小國)이자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이 가장 적음. 이에 정부는 비석유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걸프 지역의 금융, 통신, 교통 등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공항, 항구, 통신 등 양호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금융, 교통 등의 분야에서 지역 내 허브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금융 분야의 경우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바레인은 호텔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등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바레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대다수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일 정도로 인접국 관광비중이 높음. 또한, US\$100억 규모의 인프라 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광 부문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관광 분야의 성장잠재력도 큰 것으로 보임.

□ 세계 제8위의 알루미늄 생산국

- 바레인은 세계 제8위의 알루미늄 생산국으로, 알루미늄이 국내총생산의 12%,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 1968년 설립된 국영 알루미늄 생산기업인 바레인 알루미늄(Alba)은 연간 97.1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공장 증설로 알루미늄 생산능력이 50% 이상 증가될 예정으로, 이후 알루미늄의 수출 및 경제 기여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바레인의 주력 수출품인 원유와 알루미늄이 모두 국제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은 경제성장이 외부충격에 민감하게 되는 단점으로 지적됨.

다. 정책성과

□ 탈 석유화 정책 추진으로 실질적 성과

- 바레인 정부는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 관광 등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왔음.
-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역내의 금융,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업은 GDP의 16%를 차지하는 등 탈 석유화 정책의 추진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금융 및 정보통신기술(ICT) 허브로의 도약 추진

- 바레인은 단일 규제기관(바레인 중앙은행)의 관리·감독, 개방적인 영업환경 등 선진화된 금융시스템 운영을 통해 걸프지역 금융서비스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바레인은 중동·북아프리카(MENA) 국가 중 정보통신기술(ICT)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 통신 인프라, 모바일 네트워크, 온라인 서비스의 발달 정도가 우수하며, ICT 산업 관련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외국인 지분 100% 인정 등 기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ICT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바레인의 ICT 개발지수는 188개국 중 31위로, MENA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 바레인 정부는 금융 및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투자 및 규제 정비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핀테크(Fin Tech) 관련 전담 부서를 설립하고 규제 유예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등 동 분야를 집중육성하고 있음.

### □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

- 바레인은 이슬람법 체계에 맞는 금융법규 제정과 관련기관 설립, 이슬람 금융 전문가 육성기관 확충, 이슬람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중동 지역 이슬람 금융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였음.
- 바레인 중앙은행(CBB)은 타카풀\* 관련 규제 제도를 갖추고 있는 최초의 중앙은행이며, 바레인 내에 25개의 이슬람은행(자산규모 U\$253백만)이 설립되어 있는 등 중동 국가 중 이슬람 금융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른 보험으로, 상호부조와 각출로 공동기금을 조성해 계약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 및 배당금을 지불하는 제도. 샤리아에서는 투기,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일반적인 형태의 보험 이용은 불가능함.

## 3. 대외거래

### □ 저유가 추세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지속

-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바레인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원유 및 정유제품의 수출단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2015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17년에는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의 상대적 안정 등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일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국제 유가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두바이유, 배럴당) : U\$96.5('14) → U\$50.95('15) → U\$41.4('16) → U\$52.9('17<sup>e</sup>) → U\$61.0('18<sup>f</sup>)

□ 재정적자 및 각종 프로젝트 추진으로 외채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외환 보유액은 낮은 수준

- 석유 관련 프로젝트 추진 및 사회 인프라 확충,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적자 충당 등을 위한 대외차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68.0%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외환보유액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2017년에는 U\$30억 규모의 채권을 발행함에 따라 전년대비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였음.
- 2018년에도 쌍둥이 적자 지속 및 달러페그제로 인해 외환보유고 수준이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동성 위기 발생시 GCC 회원국들(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 가능성이 높아 채무상환 불이행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sup>e</sup>	2018 <sup>f</sup>
경 상 수 지	1,124	-752	-1,493	-1,325	-568
경 상 수 지 / G D P	4.6	-2.4	-4.7	-4.6	-4.2
상 품 수 지	7,436	830	-803	579	1,058
수 출	20,754	16,540	12,785	14,753	15,909
수 입	13,318	15,710	13,588	14,174	14,851
외 환 보 유 액	6,049	3,387	2,164	3,447	3,623
총 외 채 잔 액	13,203	14,064	18,805	23,025	27,745
총 외 채 잔 액 / G D P	39.5	45.2	59.0	68.0	78.5
D. S. R.	10.0	6.6	6.2	8.7	11.5

자료: IMF WEO, IFS, OECD 및 EIU



### Ⅲ. 정치·사회 동향

#### 1. 정치안정

##### □ Al-Khalifa 가문의 장기 통치체제 및 권력 독점

- 현 왕실 Al-Khalifa 가문이 1783년 페르시아 세력을 축출한 이래 200년 이상 바레인을 통치해 오고 있으며, 국왕은 강력한 친정체제를 바탕으로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왔음.
- 국왕의 삼촌인 Khalifa bin Salman 총리는 1971년 이래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여타 GCC 왕정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왕실이 내무, 재무, 외교 등 내각의 주요 장관직을 독점하여 왔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왕실은 수니파, 국민의 다수는 시아파로 사회불안 지속

- 수니파인 왕실이 정치적·경제적 권력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음. 왕실은 권력 유지를 위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인 시아파를 억압하고 있으며, 종파 간의 사회·정치적\* 불평등으로 사회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의회 의석(40석)은 수니파 58%, 시아파 35% 등으로 구성됨.

- 또한, 정부가 수니파 국민 수를 확대하기 위해 아랍 각국과 파키스탄의 수니파 주민들을 바레인 국민으로 귀화시키는 이민정책을 추진하여 시아파의 불만을 초래함.

##### □ 반정부 시아파 세력에 대한 탄압 강화

- 바레인 정부는 반정부 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테러(시위)에 가담한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2017년 헌법을 개정하였으며, 테러(시위) 가담자들에 대해 국적 박탈, 강제 추방, 사형 집행 등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숙청 정국을 지속하여 사회불안의 악화가 우려됨.

- 아울러 바레인 정부는 2016년 중 공공요금·휘발유·기호식품 가격 인상과 보조금 축소에 이어 2018년 부가가치세(잠정세율 5%)를 도입할 계획으로, 국민 다수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 불만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

## 2. 국제관계

### □ GCC 회원국들과는 긴밀한 관계 유지

- 바레인은 주변 GCC 국가에 경제적 안정 및 치안을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GCC의 최대 경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 GCC는 2011년 3월, 바레인과 오만의 반정부 시위에 따른 경제·정치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GCC 개발기금을 창설하여 인프라 개발과 주택 건설 등에 2021년까지 각각 100억 달러를 무상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바레인의 경우 현재까지 약 32억 달러를 지원받았음.

### □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바레인은 걸프 지역에서 대형 군함을 정박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환경을 보유한 군사적 요충지로,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 미국은 현재 바레인에 5개 해군기지를 두고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해 있으며, 영국도 바레인에 해군기지를 두고 있음.
- 미국은 2002년 바레인을 ‘중요한 NATO 비회원 동맹국(major non-NATO ally)’으로 지정하고 2004년 7월 바레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미국의 외교정책 동향 등이 바레인의 외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란에 이어 카타르와 외교관계 단절

- 1970~80년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은 바레인 내 시아파가 여러 차례 왕정 전복을 기도한 바 있으며, 이란의 Ahmadinejad 대통령 집권 시기(2005~13년) 동안 강화된 핵개발 활동으로 양국 간 긴장관계가 지속되어 왔음.
- 2016년 상반기,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은 이란이 자국 내 시아파 세력의 테러(시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란과 외교관계 단절은 물론 교역, 여행, 민간교류 등도 전면 중단하였음.
- 2017년 6월에는 바레인 및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4개국이 카타르 국영 뉴스 통신사 QNA의 보도 파문(카타르 국왕이 이란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계기로 카타르와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경제봉쇄를 단행하였으며, 이후 카타르 전투기의 UAE 민간 여객기 위협사건으로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

- 정부의 석유·가스·제조업 관련 프로젝트 추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차입 등으로 외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위기발생시 GCC 국가들의 재정적 지원이 예상되어 채무상환 불이행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2017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대 바레인 ECA 인수승인 잔액은 총 30.1억 달러(증장기 27.6억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없음.
- OECD CRAM(Country Risk Assessment Model)의 ECA 거래실적에 대한 모델등급이 0등급으로 최상위 수준임.

## 2. 국제시장평가

- 국제신용평가사는 재정적자 지속 등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바레인의 신용등급 강등
  - Moody's 등 국제신용평가사는 쌍둥이 적자 및 외환보유고 감소, 외채 증가 등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2017년 바레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였음.
  - OECD는 2011년 바레인의 신용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조정 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OECD 국가신용도 평가회의 에서도 4등급으로 결정되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4등급 (2018. 1.)	4등급 (2017. 1.)
Moody's	B1(Negative) (2017. 7.)	Ba2(Negative) (2016. 5.)
Fitch	BB+(Negative) (2017. 6.)	BB+(Stable) (2017. 2.)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76. 4. 17 (북한과는 2001. 5. 23 수교)
- 주요협정 : 통상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1984), 문화협정(1987),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예방협약(2012), 한-바레인 협력 공동위 설립(2015)
-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바레인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7년 12월말 기준 45건, 1.4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 교역규모 및 주요 프로젝트
  - 2017년 대 바레인 교역규모는 6.8억 달러임. 수출은 전력용 기기, 자동차, 철강관 등 2.9억 달러, 수입은 석유제품, 알루미늄 등 3.9억 달러를 기록 하였음.

- 우리 기업들의 바레인 내 주요 프로젝트는 무하라크 하수처리장(2011년), 마나마 인근 LNG 해상 인수터미널(2015년), 의료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2017년), 시트라 정유 고도화 프로젝트(2017년) 등이 있음.

〈표 4〉 한·바레인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275	187	180	290	전력용기기, 자동차, 철강판 등
수 입	616	499	248	394	석유제품, 알루미늄제품 등
합 계	891	686	428	684	-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바레인의 2017년 중 경제성장률은 원유생산량 감축 합의에 따른 원유생산 감소, 재정적자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2.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유가하락에 따라 2015년 이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6년 이후 공공요금 인상, 보조금 축소, 담배·주류·휘발유 가격 인상, 부가가치세 도입(2018년 예정) 등을 단행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석유·가스·제조업 관련 프로젝트 추진과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차입 등으로 외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위기발생시 GCC 국가들의 지원이 예상되어 채무상환 불이행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사회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요금 인상, 보조금 축소, 부가가치세 도입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증폭되어 반정부 세력의 테러(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조사역 이지은 (☎02-6255-5708)

E-mail: jelee@koreaexim.go.kr